서민금융을 빙자해서 지 잘났다고, 서민금융 한다고 떠드는, 중소기업에는 도움 안되는 거 하는 새끼들 -> 근디 이게 현실이고, 나도 그런 세상에서 먹고 잘 살아야지….^^

진정한 관리대상은 무엇인가?

조직을 변화 또는 발전시키는 항목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각 항목에 대한 동인을 관리 어떻게 관리 할까가 시스템의 기본 컨셉. 철학, …

적법하게 변화행동을 했는지 또는 변화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결과만을 관리하는 재무, 법무 이런 거와는 그 차이를 분명히 하기 (정부부처는 법무부, 행정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이런 거와 산자부, 과기부, 여가부, 중기부 등과는 차별, ERP도 마찬가지)

통상 업계에서는 어려운 관리대상은 피하고, 두리뭉실하게 안변하는거, 변하는거, IT기술적인거 혼합

해서 사용자, 멍청한 의사결정자가 못 알아먹게, 포춘500대 기업이 도입했다는 등 논리로 설득..

관리대상 항목에 대한 변화를 기치로 걸어보자….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시스템 적용에 있어서 그 경계조건(물리학 – 상대성이론이 적용되는 조건,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조건 등)에 대한 정의 및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함

기업의 규모, 업종, 산업분야 성격, 지식 및 Project의 성격 등등

관리대상 항목을 시스템적으로 PMS, PLM, KMS 등으로 표현되는 거 말고

각 기업별 실제 관리되어야 하는 거 , 왜 필요한지 등…

(고려사항은 Project, Strategy 등은 다 본인들이 알고, 머리에 있다고 할 걸 => **어떻게 이해 시켜야 할까~~~!**

어떤 경계조건하에서 명확한 관리대상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이는 흉내내기 다.

흉내내기는 진정으로 나(법인 객체)를 위한게 아니다.

양놈들, 포춘 500대 기업으로 포장하여 추종이라는 미명 아래 흉내내기 하는 거다

내가 모르는 사회과학의 경계조건은 무엇인가?

**경계조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우주론 같은 거는 무엇일까?**

모든 방벞론이나 이론체계에서 누락된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간이 지나면 못쓰게 되는 이유는 경겨조건,  전제조건이 무시되어서 이다.

어디에, 어떤 경계조건 하에서 적용될 것인지,

전제조건 또는 먼저 갖추어져야 할 꺼는 무엇인지..

그러한 고민이 없으면 흉내내기, 흉내는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흉내를 가르치는 사람 위한 거.

왜 우리는 양놈들을 언제까지 따라가야 하나?

이제 우리에 맞는, 지금 시대상황에 맞는 관리체계 만들기

왜 그놈들을 추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의가 먼저이고

배울거와 지킬거 구분하고..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을꺼

팔요한 거와 불필요한 거 등등 먼저 고민하고 세팅하는게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돈이 안되나..?

시스템이라는 어떤 체계의 기본틀을 바꾸자..

대상에 대한 정보부족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음을 인정하기

안될 수 있는점, 힌게 인정하기,

인식의 결과 한계

변수 결과들 간의 중첩효과도 고려하기

시스템 운영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기 , 중첩도 고려하려면 ?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관계 및 그에 따른 중첩효과도 연구대상에 포함해 보기

1

엄격한 절차 보다는 진실을 원한다. 진실의 규명이 절차적 진실로 바뀐 세상

두더지의 길(대가리 박고, 왜 하는지 모르고,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 없이 …)

개의 길(큰 그림에 대한 이해 없이 좌충우돌…)

지도제작자(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Path에 대한 이해도 고려하고…)

전략, 프로젝트, Knowhow 관리를 엔지니어링적 접근이라는 미명으로 본질은 없고

엔지니어링이라는 방법론에 치우쳐 본질을 망각한 접근법(6시그마, OKR, 방침관리, …)

과 물리학 우주론적으로 접근해야

사회기반문화, 조직문화, 등등 더하기 간섭파동에 대한 이해도

특정 문화는 도움이 되기도하고 않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간섭도 하나의 결정요소로 대해야..

실체 보다는 실체들 간의 관계도 고민해야..

한국적 관리론의 시작시점 선포하기..

MOT 추구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동력을 잃었다.

뭐를 추구할까, 왜 추구할까? 진정 추구하는 목표일까?

거대하고 장대한 목적, 목표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보는 거 부터 시작하기..

빅벵 초기부터 유효법칙의 진화

법칙자체가 진화하는 "메타 진화" 존재

대칭 붕괴 => 유효법칙의 변화

다중우주 > 다중 유효법칙 > 다양한 이론이 각각 맞다.

각자의 유효법칙에 맞는 시스템 구축?

=> 울리법칙의 진화

(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으면 답도, 과거도 없다

시스템을 절대선 또는 신과 같은 관점이 아니고, 사용자 각각의 관점에서, 운영시점 관점에서

기업차원의 관점에서 등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보기

코페르니쿠스의 우주에 둥둥 떠있는 천체(지구고정 -> 지구 둥둥)의 관점 변화

아르키메데스의 점 = 전지적 관점

관측이 결과 확률의 획정을 낳는다

크립티크

관찰자 질문  기원 경계조건   진화 역학

OKR, 방침관리, ESG의 Materiality 등 합치기

그래야 전사로 나간다. BSC도 합 가능

Top Down에서 Bottom Up 으로

패러다임 이 바뀌었다 사고실험  이론물리학

그동안 유행했던 모든 방법론 정리 및 통일하기

이거 먼저하기

누가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있나

당시 열혈추종자의 전문성은 무엇인가?